

kyba.or.kr kbuf.org sukrim.or.kr

청년불심 꽃피는 사이버 세계

토론문화 정착... '노인불교' 옛말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종교간 대화·동문모임도 활발



16일 창립된 춘천 정신병원 "참"나 불자회는 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춘천 정신병원 불자회 출범

매주 경전공부...독거노인 무료진료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 불자회(회장 이경덕)는 16일 병원내 대강당에서 창립기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 신도국장 성민스님, 정혜사 회주 현문스님, 봉덕사 주지 해옥스님, 인제 장수사 주지 정법스님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부인 이분희, 강원도청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 김주요, 부회장 양동선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강메아리 연화사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이진홍)는 17일 강원도 홍천군 연화사로 성지순례행사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에 참석자 50여명의 회원들은 연화사 동양 최대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주지 화담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인근에 위치한 공작산을 등반했다.

석불회 임실석불 참배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4일 전북 임실대덕 석불진경사를 다녀왔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지방유형문화재인 임실군 학정리 석불과 용암리 주지사석불을 비

롯해 5개지역 석불을 친견했다.

산악인련 통일발전 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10월 3일 경북 안동약산 홍은사에서 남북평화통일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파계사 성진암 조실 철웅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연선스님과 전국의 산악인 불자들이 참석해 민족평화통일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다음날 인근 주왕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행자부 불심회 정기법회

행자자치부 불심회(회장 하재춘)는 23일 북한 금산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금산사 주지 법안 스님은 '공직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클릭! 새 홈페이지

■ 맑고 향기롭게 경남모임 (http://www.cleant100.com) - 모임 소개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문화유산 가꾸기, 문화봉사 활동, 수련회, 매일 사찰문화여행 등의 활동 내용 등 수록.

■ bobul(http://cafe.daum.net/bobul) - 9월 19일 개설. 補佛會. 부처님을 좋아하는 모임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o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나승열 (농림부 농지과장)

96년 8월 미국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한 다음 미국 농무성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다. 집안이 불교집안이라 군대가서도 법당에 다녔고, 미국 가기 전에 대령스님을 친견하고 한마음선원에 가끔 다니긴 했지만 신심이 불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마음선원 위싱턴 지원에 다니면서 불법에 본격적으로 귀의하여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있던 3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절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대령스님의 법문을 비디오로 보고 들었다. 또한 한 달에 한두번씩 개최하는 청년회에 가서 체험담을 나누는 등 신심을 다져주었다. 외국에 파견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골프는 배우지도 않았다. 일요일에 절에 가느라, 골프 배우느냐는 질문이 있을 법도 했지만 거의 100%의 확신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는 대신 절에서 참나를 찾고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다. 귀국하기 직전, 가족

창립 법회에는 과천시청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불자들은 물론, 조계종 단과 현대불교신문 등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처님 믿는 보람을 느꼈다.

그 동안 불법에 대한 일반직원의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푸른 눈의 현각스님을 초청하여 과천시청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하는 대중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불법의 기초인 연기 법과 판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송광사 울인에 계시는 청월스님을



참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갔을 때 참나가 불보살처럼 호위하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아 플로리다 올란드에서 50여마일 거리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던 길이었다. 기분이 충만한 줄 알고 출발했는데 가스게이지에 기름이 바닥났다는 사인이 나타났다. 도로변에서 만난 미국인이 주유소가 가까운 주유에는 없고 수십 마일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니 그는 자기 트럭 주유구에 호스를 넣어 입으로 기름을 빨아서 우리 차에 넣어 주었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참나가 언제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었다.

초청, 농림부에서는 처음으로 대중법회도 가졌다. 약 100명이 참가하여 평소에 품었던 금강한 집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 이러한 스님들의 법문 등에 힘입어 농림부 불자회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불자회 창립을 위한 사전모임을 가졌을 때는 10여명만이 동참 하였으며, 지금은 회원수만도 50여 명이 넘고 다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 또한 더욱 힘을 나는 것 같다. 더불어 올 1월 농지과장을 맡은 뒤 불교계의 현안인 전종사찰의 농지취득문제에 원만하게 타결됐으니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농림부 불자회원들과 더불어 인연이 닿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불제자들이 열심히 닦고 닦으면 기어이 부처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금융단 불자회운영위 청계사 순례

"해마다 두차례 회장모임 개최"

10개 은행 불자회 임원들로 구성된 금융단불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하)는 17일 과천 청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수협, 한빛, 기업, 중소기업, 산업, 서울은행 등 6개 은행 불자회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지순례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두차례 각 은행불자회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하고 10월 28일 금융단불자회 하반기 합동법회를 의함은행 본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10월22일 동국대에서 개최될 전국직장능력 불자 연합대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17일 6개은행 불자회 운영위원 15명은 과천 청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김윤하 위원장은 "이번 성지순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각 은행들간의 정보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금융단 불자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6대 장봉암 총무원장 및 제5대 오현각 중앙총회회장 취임법회

국화향기 그윽한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법체정안하심을 삼보님전에 기원드립니다. 본 종 제6대 장봉암 총무원장 및 제5대 오현각 중앙총회회장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9. 20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장 취임식 준비위원회

Tel 02)394-9468.9 Fax : 02) 395- 9468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00세트 한정판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분의 성분이 신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육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저음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이 좋아져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끝 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난해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까지 남 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현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주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달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나 신장염이 없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평소나 감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개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